

경북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운영... 지역기업 AX 종합지원

재직자 대상 AI 기반 직무훈련 지역 특화 AX 훈련모델 개발 추진 "전문인력 통해 제조 AX 선도할 것"

경북도가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지원하기 위해 AI·로봇 융합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에서 국회의원회고고용노동부, 구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역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AX 대전환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 대상 AI 기반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총 295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교육시설이다. 2022년 완공 이후 연



경북도와 관계기관이 21일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에서 열린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 1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로봇 기반 실습 장비 120여 대를 활용한 현장형 교육이 가능해 교육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60개 자체 교육과정과 4개 민간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도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대경권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면서 지역 기업의 AX 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됐다.

센터는 ▲기업 AI 수준 진단 ▲기업

맞춤형 AX 컨설팅 ▲제조 AX 전략 세미나 ▲직무 적용 AI·로봇 전문교육 ▲현장 문제 해결형(PBL) 훈련 개발 등 산업현장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연간 180명 이상의 재직자에게 AI·로봇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력 산업 제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역 특화 AX 표준 훈련 모델을 개발해 지역 내 AX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

를 계기로 AX 전환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늘어나는 AI·로봇 전문인력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결국 기술을 가진 인재"라며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력 제조 산업이 필요로 하는 AI·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제조 AX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소담스퀘어 공모사업 선정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비 42억원 등 74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상공회의소에 전용면적 152평 규모로 올해 '소담스퀘어 경북'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곳엔 스튜디오와 교육장, 커뮤니티 라운지 등이 들어서며, 운영은 (사)지역과소셜비즈가 맡으며,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로 추진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전남 완도군은 총사업비 700억원을 투입해 상습침수와 해일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일읍 동송지구와 완도읍 1부두, 신지면 동고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높은 조위와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만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울산시

'고령자 이용권' 정책 성과

울산시가 고령자들이 시중보다 싸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확대한 이후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4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 횟수가 1만 335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기본요금 1000원(3km 기준), 최대 4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충남도, 선거인 185만 7239명 확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 대비 5만 4143명 증가 50대 19% 차지... 천안시 57만명 최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는 충남 지역 최종 선거인 수가 185만 723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인 수(180만 3096명)보다 5만 4143명(3.0%)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57만 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30만 2051명), 서산시(14만 838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19.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만 18~19세인 10대 최연소 유권자는 4만 1028명으로 나타났다.

충남 도민들은 지난 23일부터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전입신고 시기에 따라 투표소 위치가 달라지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반면 5월 13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유권자는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로 가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절차"라며 "소중한 한 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명부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준완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충남도는 선거 기간 중 오해를 살 수 있는 공직자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산시, 31일 대규모 해양환경 정화활동

'부산바다, 모두의 바다로' 개최

오는 5월 31일 제31회 바다의 날 맞아 부산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환경 정화활동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오는 31일 오후 '바다의 날'을 맞아 영도구 중리 노을전망대 앞 해변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정화활동 '부산바다, 모두의 바다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비영리법인 '글로벌 반려해변 네트워크'(GAA)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동 활동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대한민국의 민간 주도형 해양환경 정화활동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GAA를 출범했다.

올해 정화활동은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쓰레기 종류 및 수거량을 기록하는 해양 폐기물 성상 데이터 조사,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이 진행된다.

활동에는 전국 반려해변 코디네이터와 임양단체, 청년 리더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도 반려해변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참가자는 3시간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중장년층 등)을 위해 사후 문서 제출 방식의 수동 등록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활동을 통해 기록되는 쓰레기 수거량과 정화 면적 등의 데이터는 유엔(UN) 산하 세계자연보전데이터베이스(WDPA)의 글로벌 표준에 맞춰 보고서(리포트)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반려해변 모델'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며, 부산은 해당 해양환경 정화모델의 첫 공식 활동지로 소개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스페이스워크' 396만명 발길

내달 초 누적 방문객 400만명 예상

포항의 대표 관광명소인 스페이스워크가 누적 방문객 4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장한 스페이스워크의 누적 입장객 수는 최근 396만명을 넘어섰다. 개장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의 성과로, 현재 방문 추세를 감안하면 내달 초 4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 원을 투입해 제작 후 기부채납한 체험형 철제 조형물이다. 가로 60m, 세로 57m, 높이 25m 규모에 총 길이 333m 구조물 위를 직접 걸으며 영일만과 포항제철소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대표 공공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포항 스페이스워크 전경.

있다.

스페이스워크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과 죽도시장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포항이 철강도시를 넘어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천년고도 전주에서 밤마실 즐기세요"

전주시 내달 '전주국가유산야행' 진행

전북 전주시는 오는 6월 5~6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구도심 일원에서 '2026 전주국가유산야행'을 진행한다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후백제 왕도 완산주부터 조선시대 전주부를 거쳐 오늘날 전주시에 이르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올해 야행은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후백제 역사콘텐츠를 강화해 전주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집중 조명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 ▲견훤대왕배 띄우기 ▲후백제의 왕궁, 산성행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 경기전 좀비실룩과 향교괴담, 달빛차회, 풍남문 국악공연 등 다양한 야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주국가유산야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볍게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주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야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주의 밤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영양군

'영양 취은당' 문화유산자료 지정

영양군의 향토유산인 '영양 취은당'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영양군은 일월면 도곡리에 위치한 향토유산 '영양 취은당'이 경상북도 고시(제 2026-184호)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취은당'은 조선 후기인 1710년대에 지역 출신 문인인 함양오씨 취은당 오삼달(1674~1744)이 고향으로 돌아와 만년을 보내기 위해 건립한 정자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 가옥과 누정(누각과 정자)의 전형적인 건축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